

중남미에 처음으로 전해진 스페인어 형태 연구

서경석(한국외대)*

- I. 들어가는 글
- II. 중남미 스페인어 형성 이론
- III. 16세기-17세기초의 스페인어
- IV. 중남미 스페인어의 방언적 특징
- V. 대중스페인어
- VI.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중남미 스페인어라 하면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총칭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스페인어를 지금 중남미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중남미 스페인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찍이 스페인어가 중남미에 전해진 이후에 나름대로 변화 발전을 겪어온 결과를 일컫게 된다. 다시 말해 1492년 콜럼버스가 중남미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어가 중남미로 전해져 신대륙의 언어로 자리잡고 변화해 온 것이 오늘의 중남미 스페인어인 것이다. 당시 스페인 남부지방 주민들이 신대륙을 향한 대부분의 이주자였으므로 초기 중남미 스페인어는 이베리아반도 남부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따라서 오늘의 중남미 스페인어 역시 안달루시아 지방의 스페인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중남미 스페인어와 안달루시아 방언간의 관계는 깊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 두 언어의 절대 유사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론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유사성만 강조한 나머지 아메리카 정복 초기에 중남미에 전해진 스페인어의 당시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안달루시아 지방의 방언이 중남미로 건너가 변화 발전하여 오늘의 중남미 스페인어가 되었다면 그 옛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중남미 스페인어의 이해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중남미 스페인어는 남부 스페인 지방의 언어 또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언어와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 여부의 판단은 당시의 안달루시아 지방 언어의 모습을 알고 북부지방이나 다른 지방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또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언어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페인에서 아메리카로 -특히 제일 먼저 카리브해 지역으로- 전해진 당시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모습을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며, 이것이 중남미 스페인어로 정착하며 생겨난 방언적 특징을 살펴보고, 대륙에서 건너간 스페인어가 가진 대중언어로서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초기 중남미 스페인어와 관련된 기존 의견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 중남미 스페인어 형성 이론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제는 20세기 들면서부터 전문가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중남미에 들어온 스페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민족과 언어의 세계와 접촉하면서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섞이는 가운데 변화했다는 것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기본 형성에 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어 중남미에 들어간 스페인어의 당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한다.

중남미 스페인어의 기저에 대한 논란은¹⁾ 대체로 메넨테스 빠달

¹⁾ 서경석(2001)을 참조할 것.

(Menéndez Pidal)의 이론과 함께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메넨데스 빠달은 중남미로의 첫 번째 항해에 안달루시아와 엑스뜨레마두라, 가나리아스 인들이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중남미 스페인어는 스페인 남부지방의 방언의 연장으로 보았고 뒤이어 바그네르(Wagner, 1920), 알론소(Alonso, 1953), 라빠사(Lapesa, 1957), 보이드-바우만(Boyd-Bowman, 1964) 등의 언어학자들도 계속적으로 빠달의 의견을 지지하여 그 의견에 대한 이견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지자 자신들도 관점을 바꾸어보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바그네르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영향이라는 것은 중남미 이주 당시의 스페인 남부 출신의 주민 대부분이 신대륙 해안에 살았으므로 단지 해안에만 해당한다며 나중에 살게된 그 이외의 지역은 이후의 스페인 타 지역 출신의 이민과 거의 비슷했다고 주장한다. 알론소 역시 중남미 스페인어의 안달루시아 영향을 신대륙의 해안지방과 섬 지방으로 제한하였으나 라빠사는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전제로 고지대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의 특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라빠사의 입장을 발전시켜 갈메스(Galmés, 1962)는 아예 언어학적으로 두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해안을 중심으로하는 안달루시아 영향지역과 다른 하나는 까스티야 지방의 영향을 받은 신대륙 내륙 지방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앙리께스 우레냐(Henriquez Ureña, 1921)는 멕시코 고원의 예를 들어 중남미의 식민화 과정에서 스페인 남부방언의 영향이 우세했고 고지대보다 저지대의 이민자들이 먼저 거주했다는 이론에 반대를 표명했다.

알론소는 이러한 앙리께스 우레냐의 생각을 따라 중남미 스페인어의 기저는 16세기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된 모든 이주, 원정대에 의한 평준화 현상이라고 입장을 어느 정도 바꾸기도 했다. 즉 알론소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성인 세세오, 예이스모, 람다시스모, 로파시스모¹⁾ 등은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자생

2) 모음 사이의 s가 r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 라틴어에서 flosis가 floris로 바뀌게 된다.

적 다중 초점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단순 유전적 현상 이라기보다는 다유전적 현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까탈란(Catalán, 1989)은 “대서양 스페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까스떼야노 스페인어”에 대응시켰다. 즉 “대서양 스페인어”란 안달루시아 출신만이 아닌 서인도 제도나 까나리아스, 스페인 대서양지역의 스페인 사람들까지 포함된 히스패닉 사회의 언어적 형태를 통틀어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까탈란은 세비야나 까디스와 같은 스페인 대서양연안 도시와 꾸준히 접촉이 있는 신대륙의 해안지역이나 항구지역과,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가진 내부 고지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¹⁾ 이러한 구분은 16세기의 스페인어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세비야를 중심으로 한 개혁적이고 대중적인 언어 규범과 톨레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규범이 서로 대치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사모라 비센떼(Zamora Vicente)나 라빠싸, 알바르(Alvar) 등의 전문가인 까탈란의 이 의견을 수용하여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을 설명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알바르는(1977)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은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면서도 대서양 스페인어라는 용어를 거부하지 않았다. 알바르는 까나리아스의 스페인어가 대서양 스페인어라는 그룹에 포함된다는 것과 또한 스페인 남부지역의 방언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알바르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에 있어서 본국 도시로서의 경제, 사회적, 문화적 특권으로 인한 세비야 규범을 강조하였으며 까나리아 군도의 “중간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통하여 안달루시아의 대서양 항구와 중남미 지역 사이의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알바레스 나사리오(Alvarez Nazario)와 와인베르그(Weinberg), 그란다(Granda) 등은 중남미 정복의 처음

3) 이것은 이미 메넨테스 빠달이 1962년에 중남미를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알바르(1979), 후라고(Frago, 1993)를 참조할 것.

단계에서 중남미에 스페인의 여러 방언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코이네화(koinezaci n)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 결과 차이들이 평준화되고 단순화되며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특징들이 중남미 전역에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와인베르그(1993)는 이 코이네¹⁾(koin)의 형성에서 안달루시아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았다. 즉 안달루시아인들이 결정적인 발효제의 역할을 해서 중남미 스페인어의 대부분을 특징 짓는 음운적인 주요 특징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안달루시아인의 특징이 전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르는 차이점은 코이네화 과정에 개입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남미 전체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그란다(1994)가 지적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난 지역적인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이베리아 반도와 신대륙간의 접촉에 있어서 카나리아스를 연결고리로 한 안달루시아의 흔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카나리아스의 주민 대부분은 안달루시아 출신이었고 16세기 초 중남미로 간 카나리아스인의 대부분이 역시 안달루시아인이었기 때문이다(베레스 피달 Perez Pidal, 1955).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남미를 정복하고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기가 스페인의 스페인어가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변화란 음운변화를 말하는데 이미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스페인어와는 또 다른 두 시스템의 대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대륙 첫 세기에 서로 다른 방언을 주축으로 하는 두 시스템이 나타나게 된다.

그란다와 와인베르그는 코이네화 과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표준화 이론을 지지하며 중남미 스페인어의 다양성의 모양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란다(1994)는 나중에 이 표준

5) 다른 지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언어 형태를 말하며 이 코이네는 공통어이지만 반드시 표준어일 필요는 없다.

화과정을 초기 단계(16-17세기 중반)와 후기(17세기 중반-1810)의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이 두 단계가 동일 중심의 코이네화 과정이 되며 그 모델은 톨레도 궁정양식의 북쪽 스페인어로 간주했다. 중남미의 스페인어 공동체가 스페인과는 다른 고유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특징과 개성을 얻게 됨으로 해서 중남미 스페인어는 무조건적으로 본국 모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사회와 스페인 본국의 연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스페인의 규범은 중남미 각 국가의 고전 규범과 일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렇게 어쨌든 중남미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가려는 내적인 움직임은 완화되어 가지만 일부 사회에서는 언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스페인 본국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격리되고 있고 형식은 전통과 규범을 벗어난 내적 움직임에 급진적인 변화의 결과로 표출되기도 함을 볼 수 있다.

그런다는 중남미 전지역에서 코이네화 과정이 17세기 초에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해안 북쪽 가까이에 위치하며 빠빠아멘토를 사용하는 아루바, 보나이세, 꾸라사오 등의 섬들 같은 곳들을 볼 때, 비록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없을지라도 언어외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추측하건대 이 지역에서 코이네화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표준화과정¹⁾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1499년에 발견되고 1527년에 스페인 제국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지만 전략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아 이 지역에 들어간 스페인 인구 구성이라던가 범위가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스페인 반도 여러 지역 출신이 있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¹⁾ 이러한 가정은 빠빠아멘토 단어들의 기원에 관한 마두로(1966)의 이론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¹⁾ 즉 나중에 이 지역으로 온 네델란드 사람들에 의해 스

6) 한 언어가 어떤 방법으로 기호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7) 알바레스 나사리오(1987)는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를 이와 유사하게 분석한 바 있다.

8) 물론 어휘 면에 있어서 방언이 여러 개라는 것이 코이네화 과정과 양립할 수도 있다고 이미 와인베르그(1993:44)가 언급한 바 있기는 하다.

페인 개척자들의 유입이 중단되고 또 스페인과의 직접적인 연대도 끊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남미 스페인어의 언어학적 기저를 이루는 다양한 방언 특징을 가진 대중스페인어인 16-17세기 초의 정복자들의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경향이 역시 빠빠아멘또 현상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띠야스(Antillas)와 대륙에 정착한 스페인 첫 번째의 이주민들은 군인, 경작농, 수공업인, 선원 등의 대중계층에 속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빠빠아멘또 현상과 스페인어의 사회적 지리적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간에 가능한 평행주의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에 있어서 안달루시스모가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다른 방언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16, 17세기 초에 정복자들의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중남미 스페인어의 언어적 기초가 되는 다양한 방언적 특성을 통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 16세기나 17세기초의 스페인어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시기의 언어는 정복자와 초기 정착자들의 언어로 대중적이고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며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III. 16세기-17세기초의 스페인어

1. 음운적인 면

16세기는 음운적인 면에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여겨지는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거나 안정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모음에 있어서 악센트 없는 모음의 열림 정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후기 라틴어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여 로망스 언어에서 강화된 현상으로 중세 스페인어의 특징이 되었으며 16세기에는 그 빈도 수는 줄어들

지만 폐모음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vanidad invernar, aliviar*. 이런 모습은 *seg n, seguro, ceremonia* 등의 정상적 단어에도 과잉수정 현상을 일으켜 17세기에서도 *sig n, seguro, cerimonia*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afici n* 같은 명사는 정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17세기에는 열림 정도의 불안정이라는 것은 몇몇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으며 까나리아스의 스페인어의 경우 이 현상은 좀 더 지속되어 18세기에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yntierro, sebiles, ligitima, difinitiva, moger, complimiento*.¹⁾

자음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16세기 전반까지는 적어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b]와 [v]가 서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반에 곤살로 꼬레아스(Gonzalo Correas)나 마테오 알레만(Mateo Alem n) 등이 [v]를 순치음으로 간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까스티야 라 비에하(Castilla la vieja) 와 아라곤을 비롯한 북부지방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이 두 소리는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16세기 중반까지 [f]와 [h] 는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미 15세기부터 까스티야 라 비에하에서는 f가 사라졌고 반면에 남쪽인 까스티야 라 누에바(Castilla la Nueva)와 안달루시아에서는 -h로 바뀌어 사용되며, f가 h로 대치되는 현상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났다. 궁중에서는 톨레도와 남쪽 지역을 모델로 하여 h-가 기식음화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북부언어의 영향으로 기식음화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안달루시아나 엑스뜨레 마두라, 카리브해안 안띠야스 지역 등 기식음화가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x나 g, j 철자로 표현되는 []와 []에서 나온 후음 [x]도 기식음 [h]로 발음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라빠사, 1964).

자음군에 대해서는 대중 언어에서처럼 자음군이 축소되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까지도 *cobdiciar, cobdo, dubda* 등과 같은 자음군이 유지되기도 했다. 라틴어원의 교양어휘의

⁹⁾ Samper Padilla, C ceres Lorenzo, Gonz les Monllor Munteanu 1994로 Dan Munteanu (1996)에서 인용.

자음군은 한편으로는 그 교양발음을 유지하며 다른 편으로는 단순화하려는 대중적인 경향이 16세기 내내 맞서게 되었다. 그것은 17세기 끝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화자 개인의 입맛에 따라 또는 어떤 것이 더 많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 것이다.

중세의 전구개 마찰음 [], []는 유무성 치경음 [s]와 혼동이 되었다가(*quijo, vigitar, relisio, colesio*) 그중 어느 하나로 형태가 굳어지게 됨을 볼 수 있으며¹⁾ 동시에 유성음이 중화되어 일련의 치경 및 설단 치찰음과 전구개 마찰음이 무성음화하는 현상도 확장되어 나타난다. 즉 중세 철자가 *z, ss, s, x, g, j*로 나타나는 치찰음과 마찰음이 *tuviessse, matasen, a er, re ar, de ir, dijera, ejer i io, teolox a*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18세기 카나리아스 지방의 자료에 의하면 그 때까지도 *x, g, j*의 혼동이 일어나는데 *dejo, dexo, bajo, baxo, auajo*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카나리아스 스페인어에서 전구개 마찰음의 무성음화가 그 당시까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세 치찰음의 체계는 16, 17세기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 중의 하나로¹⁾ 세비야 지방에서는 15세기부터 *z, s, ss*의 혼동이 시작되어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항해를 할 때에는 이미 그 혼동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라빠사(1964:176)는 밝히고 있다. 또한 16세기 후반에는 설단 치경 마찰음은 이미 사라지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방언에서는 두 발음의 대립을 강화시켜 구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Jordan Manoliu, 1989, I:220) 이것이 바로 치음 무성음[ts]의 발전이며 북부지방 방언에서 나타나는 치간음화인 것이다. 따라서 중세의 4개 음소가 안달루시아 지방의 규범 하에서는 하나로 되고 까스띠야 지방에서는 둘로 되는데 여기서 *seseo*와 *ceceo*의 현상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유성음의 대립이 중화된 이후에 전구개 마찰음 []가 연구개 쪽

10) 이미 1517년 네브리하는 *io se lo dixie* 대신에 *io gelo dixie* 형태가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현상에 주목했다(라빠사, 1959:224).

11) 서경석(2001)을 참조할 것.

으로 이동하면서 16세기에는 연구개 무성 마찰음 [x]로 발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라빠사(1959:247)에 의하면 이 새로운 음소는 17세기 중반까지 전구개 마찰음 []와 번갈아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라빠사는 이러한 조음의 변화는 이미 중세의 조음기저가 다양하게 바뀌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중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u r fano*, *guerto*, *guesped* 등이 그러한 예이다.

남부지역 방언에서는 [ɫ]와 [j]사이에서 혼동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단 문또누(Dan Munteanu, 1996:163)에 의하면 이미 10세기에 첫 음 [ɫ]이 모사라베의 *ye*로 발음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16세기에 스페인 남부에서 단어 첫 위치의 *ye smo*는 매우 확산된 현상으로 보았으며 17세기 중반까지 중간위치의 [ɫ]도 역시 *ye*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남부지방, 구체적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16세기에 끝음절의 *-s*가 기식음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성음화가 되지 않은 *-z*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겪게된다. 이 현상이 16세기에 스페인 전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1575년의 톨레도의 문서에서 *mu trale*와 *mu strale*, *muetra*와 *mustra* 등이 혼동되어 나타난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라빠사, 1964:180).

그밖에 16세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r]의 혼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현상은 12-13세기 톨레도의 모사라베 문헌에서 볼 수 있으며 14-16세기의 안달루시아의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abrir*대신에 *abril*이 사용되며 *sorbiendo* 대신 *solviendo*가, 또 *comer* 대신 *comel*이, *lealtad* 대신 *leartad*, *particular* 대신 *particural* 등이 사용되고 있다.

통사적 음성학적인 면에서는 당시의 주요 특징적인 요소를 다음처럼 정리된다.

1) 정관사 *el*이 여성형 *la*로 서서히 대체된다. *el espada*가 *la espada*로, *el otra*가 *la otra*가 되며 *el*은 단지 악센트 있는 *a*로 시작되는 여성형에서만 사용된다. *el arena*, *el altura*, *el agua*, *el guila* 중 뒤의 두

명사는 현 스페인어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2) 동사 + 대명사로 결합된 형태들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poneldo, embialdo.

3) 직설법 미래와 조건시제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 deber a-debr a, valer -valdr , salir -saldr , porn -pndr , tern -tendr .

4) 직설법 미래형태가 새롭게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옛 형태 besar te h , enga ar me h 형태가 besar te> te besar , enga ar me>me enga ar 등으로 바뀌어 갔다.

5) 존칭형태 vuestra merced, vuestra se or a 등이 사용되고 반복되며 vuesamerced, vuesan ed, voace, vuced, vused, usted, usir a, us a 등으로 단순화되었으며 vused, usted의 형태는 17세기 대중언어에 나타나고 있다.

2. 형태적인 면

16세기 스페인어의 형태적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여러 문법범주가 그 형태와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테면 지명들은 대체로 여성형태를 갖지 않는다. provincia cartagin s, la leon s potencia(라베사, 1959:253)처럼 지명 형용사는 여성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미 14세기부터 나타나기는 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형용사의 최상급형인 -simo가 16세기 후반부에 일반화되어 나타나는데 이 형태는 라틴어나 이탈리아어의 영향으로 문학에서 먼저 정착하게 되었고 나중에 구어에 확장된 것이다.

대명사는 이시기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들로 자리잡게 된다. 인칭대명사 nosotros와 vosotros가 보편화되었고 ge lo, gela 구문에서 ge형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찰음의 변형현상 때문으로, 또는 ge와 재귀어격 se의 혼동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30년 이후에는 ge 형태는 일부 시골지역에서만 사용되

었다. 그 외의 대명사로는 지시대명사 *aqueste-este*, *aquese-ese* 와 *estotro-esotro*가 계속 사용되었으며 관계 대명사 *quien*은 그 당시까지 단일 형태였던 것이 복수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17세기 초반에 들어서도 *quienes* 형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되었다.

16세기 전반부에 동사의 형태가 고정되지 못한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일부 현상은 17세기 중반까지도 가게 된다. 직설법 현재에 *am is*와 *am s* 형태가 같이 사용되고 *ten is*와 *ten s*, *sois*와 *sos*가 같이 사용되거나 곧 *am is*, *ten is*, *sois*가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s-soy*, *vo-voy.*, *est -estoy*, *do-doy*, *trayo-traigo*, *cayo-caigo*, *quies*¹⁾-*quieres* 등 형태의 혼용도 찾아볼 수 있다.

접속법 현재에서도 직설법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haiga*와 *huiga* 같은 형태가 *huya*와 혼동되어 *quies*처럼 문어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직설법 현재나 접속법현재에서 모두 철자가 고정되지 못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 *conozgo*, *conozco*, *conosco*; *luzga*, *luzca*. 17세기초에 접어들며 이러한 혼동은 마무리되고 대부분 현재의 형태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초 끝테론 시대까지 *am bades*나 *sent ades* 같은 직설법 불완료과거의 고어형태와 *amab is*, *sent ais*같은 현대형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접속법 불완료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16세기 후반부터 *dixereis*, *quisierais* 형태가 고어형태 *dix redes*, *quisi rades* 등과 같이 나타나며 *fuerdes*(<fu redes) *vierdes*(<vi redes) 등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직설법 부정과거에서는 2인칭 복수형태에 *fuistes*, *matastes* 형태가 17세기까지 사용되었고 그것이 현대 형태인 *fuisteis*, *matasteis*로 대체된 이후에도 *distedes* 같은 일부 고어형태는 사용되기도 했다.

명령법 역시 혼용현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cant* 와 *cantad*, *ten* 와 *tened*, *sal* 와 *salid* 등이 그러하며 때로는 *erguide*, *amade*같은 고어 형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초에는 이러한 혼동은 사라지게

된다.

16세기 스페인어는 부사나 전치사를 많이 사용했다. 그것이 바로 고어적이고 교양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요인으로 그 중에는 *cabe, so, luego* ‘*inmediatamente, pronto*’ *puesto que* ‘*aunque, a pesar de que*’ 등이 있다. 전치사 지배에 있어서는 *viaje de Parnaso, vivir a tal calle, hablar en tal asunto*에서처럼 현재와는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사 *entonces, entonces, ans* , *assi*가 자유롭게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3. 통사적인 면

16세기-17세기에 중세 스페인어에서 현대 스페인어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통사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Haber*와 *tener*동사들은 그 당시까지 둘 다 소유나 고유성질을 나타내는 타동사로만 사용되었으나 이후에 기능이 구별되었다. 다시 말해서 황금세기 초기에는 거의 동의어였지만 *tener*가 소유를 나타내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면 *haber*는 타동사의 성질을 잃고 조동사로서의 기능만으로 남게 되었다. *haber*의 타동사의 기능은 일부 고어 표현에서만 남아있는 반면에 그의 조동사적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간 것이다. 17세기 중반까지 이 조동사의 기능은 확장되어 *haber*가 자동사, 재귀동사 등의 조동사로도 사용되며 *ser*동사와 경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Ser*와 *estar* 동사의 용법은 16세기에 이미 서로 분명히 구별되었지만 그 사용규범은 현대 스페인어에서 보다 엄격하지는 못했다. 그 예로 *ser*는 장소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Darazut n es en Sierra Morena*(라빠사, 1959:256). 수동태에서 이전 동작의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es escrito*와 *est escrito*가 섞여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estar* 구문은 이미 14세기부터 사용되던 것이었다. 수

¹²⁾ *quies*는 Dan Munteanu (1996:166)에 의하면 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동태 구문을 피해서 *se* 수동표현을 사용하려는 경향은 12-13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 수동 표현은 동사 원형이나 명사 종속절이 주어가 될 경우, 또는 자동사의 경우에까지 확장되었다. 따라서 점점 비인칭의 성격이 더해지고 있으며 비인칭의 특징으로 인해 화자들은 주어를 목적어로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사람일 경우 *a*를 붙이게도 되었다.

se 비인칭 구문이 많이 쓰이고 또 부정대명사 *uno*가 자주 사용됨에 따라 부정대명사 *hombre*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17세기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cantara*형 동사형태는 직설법 과거완료로서의 본래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13-16세기 사이에 직설법과 접속법의 복합 형태가 생긴 이후에 *cantara* 형태는 16세기에 조건문에서 접속법 과거완료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말과 17세기초에 *cantara*는 접속법 과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7세기초에는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하는 조건문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무렵에 주절에 직설법 현재나 미래를 사용하고 종속절에 직설법현재를 사용하여 현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문도 생겨나게 되었다.

사람 및 생물체, 의인화된 사물이 목적격이 될 때 전치사 *a*를 사용하는 현상도 확장되었다. 3인칭 인칭대명사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중세 스페인어에서는 여격으로 *le, les*(<lat. *illi, illis*)가 목적격으로 남성, 중성에 *lo(illum, illud)*, 여성에 *la(illam)*, 복수에 *los(illos) las(illas)*가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전반에는 문어에서 남성 목적격이 사람을 언급할 경우 *le*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목적격이나 여격에 공히 사람에게는 *le, les*를, 사물에는 *lo, los*를 사용하기도 했다.

4. 어휘면

황금세기에 있어서 어휘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

다. 문학의 거장들로 인하여 언어가 풍요로워지는데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신조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과식주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언어의 명확성이나 메시지의 이해가 영향을 받는 단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과식주의의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적 의미를 가진 대중적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스페인 제국의 유럽과의 문화 정치적 관계로 인하여 이탈리아어, 불어¹⁾, 포어 적게는 독일어까지 다른 문화의 언어에서 차용어가 많이 생겨났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일이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신대륙으로의 여행과 함께 16세기 초반에는 신대륙의 사정을 전해주는 식물, 동물, 전통, 관습, 신앙 등 아라와카리브(arawak-caribe)어 어원의 원주민 어휘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동시에 언어는 자체적으로도 파생어나 합성, 의미의 확장 등을 통하여 풍부해지게 되었다. 파생의 예로는 축소 접미사 -illo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축소 접미사 -uelo는 현대에서보다 더 활발하게-특히 시 부문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16-17세기의 스페인어가 발전적 요소를 겪으면서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대 스페인어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중남미 스페인어의 방언적 특징

신대륙에 도착한 스페인어는 스페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주하고 본국과의 밀접한 교류로 인하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스페인 본토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 현상을 그대로 겪게 된다. 스페인어가 아메리카에 들어간 이후 스페인어는 코이네화 과정과 표준화 과정을 겪게된다. 그러나 와인베르그(1993:440)가

¹³⁾ 서경석(2003)을 참조할 것.

지적했듯이 “코이네가 방언과의 접촉의 결과라고 해서 그 형성에 있어서 접촉하던 여러 다양성 중의 하나가 지배하는 것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서 보았듯이 중남미 스페인어와 안달루시아 방언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형태 통사론적인 면에서 특히 음운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된 단일 중심화 표준화라는 것이 코이네를 이동시킨 새로운 언어양식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이동은 단지 부분적이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그란다, 1994:47).

따라서 빠빠아멘토 같은 언어의 기원이나 상하관계, 그 발전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방언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카리브-안띠야나 지역의 방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634년 이후에는 아루바, 보나이세, 꾸라사오 섬들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스페인 본국과의 접촉이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모어와의 연계성은 이웃 지역 안띠야스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을 통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1) s, ss, , z의 철자로 나타나는 치찰음이 다양하게 조음되기는 하지만 [s]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고 이 소리는 안달루시아의 전설음 [s]과 매우 유사하다(라빠사, 1959:349, 사모라 비센페, 1967:418).

2) 음절끝의 -s가 기식음화하고, 이어 뒤따르는 자음에 동화하거나 때로는 -s에 의해 뒤 자음이 무성음화된다: mismo> mihmo > mimmo, resbalar> rehbalat >refalar. 경우에 따라서는 기식음이 사라지며 단, 복수 2, 3인칭의 구분은 모음의 장단 또는 열림 정도로 이루어진다(라빠사, 1959:349, 요라크, 1961:27, 나바로 토마스, 1948:44-48).

3) ye smo로 [ʎ]가 [j]로 변하는 것은 이베리아 반도 전체에서 나온 현상으로 안달루시아 지방만의 특징은 아니다.

4) 람다시스모나 로파시스모 현상 또는 -r, -l의 생략현상이 있다. 때로는 [r]과 [l]의 교호현상은 없으나 단어 끝에서 생략될 수는 있다(라빠사, 1959:349, 사모라 비센페, 1967:418).

- 5) h-(<f)의 기식음화: *harto-jarto, hablar-jablar* (라빠사, 1959:349, 바그네르, 1949:29).
- 6) 모음사이의 유성음 탈락
- 7) 모음사이의 -d- 의 약화 또는 생략
- 8) 대명사 *vosotros*가 일반적으로 생략되고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voseo*가 사용된다.

V. 대중스페인어

역사가들은 식민지 초기에 아메리카에 도착한 스페인사람 10명중 9명이 중류 또는 하류층의 사람들이었고 한 명 꼴만이 귀족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식민지 초기 사회구성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프리데 Friede, 1966:29). 이처럼 아메리카대륙 정복과 정착은 대부분이 보통사람들의 일로 매우 대중적인 성격을 갖게된다. 따라서 그들의 사용언어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것이고 중하류에서 사용되는 것이었다. 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바로 대중언어의 특징으로 이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범화되기도 했다. 또 어떤 사항들은 언어 내부의 경향이 되어 비록 표준규범은 아니지만 언어발전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 주요한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음성학적으로 비 악센트모음의 열립 정도의 혼란을 볼 수 있다: *sig n, tiniente, ceviles, sepultura, justicia, monumento*. 또한 [aj]와 [ei]의 교호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baile, beile, aire, eire, seis, sais, peine, paine*.

대중언어 형태의 특징중의 하나인 *hiato*(강모음 분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으며: *acorde n>acordi n, real>rial, cae>cai, toalla>tualla*, 악센트가 이동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m estro, r iz, b ul*등은 어느 시기에는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대중스페인어는 자음군을 축소화하려는 옛 노력을 계속해서 자음하나를 생략시키기도 했으며: *istancia*, *asfisia*, *doctor*, 또 자음군의 첫 자음을 모음화 하기도 한다: *seicion*, *conceuto*. 또 과잉수정 현상도 찾아 볼 수 있으며: *discrecci n*, *acurdo*, [d]>[l]-[r] 현상도 볼 수 있다: *alvertir*, *arministrador* (라빠사, 1959).

-d-의 생략은 교양언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어에서 대부분의 과거분사 -ado-가 어휘화 하게 되는데, *nada>n* , *todo>t* , *puede>pu* , *pedazo>peazo>piazo*, *today a>toav a>tuav a* 등에서 보다시피 동일한 모음이 합쳐지고 이중모음이 나타나게 된다. [g]와 [r]도 유사한 현상을 겪게 된다: *aguja>a ja*, *para>pa*, *quiere>qui* , *parece>paece>paice* (라빠사, 1959:300).

접두사 *des-*에서 d가 사라지며 다른 접두사 *ex-*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desperdiar>esperdiar*. 또한 이중모음 [we]가 강화되어 연구개음 [g]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14세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b]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g evo*, *g eso*, *g erto*, *bueso*, *buevo* 이로 인해 또 다른 [g]와 [b]의 교호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g elta*, *g ey*, *abuja* 구문의 음성적인 면에서는 부정확한 분할로 인한 교착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모음사이에 나타나는 전치사 *de*의 d는 사라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de*가 모두 사라지기도 한다.¹⁾ 전치사와 정관사가 만날 경우 단축현상이 있다: *pal<para el*, *pol<por el*, *contral<contra el*. *Me*, *te*, *se*, *le*, *de*, *que* 등이 모음 앞에서 e가 탈락하는 현상은 옛 스페인어에도 있었고 반도 내에서 17세기까지 유지되었다.

형태적인 면에서도 역시 대중 스페인어는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한 예를 들어보면, 동사 형태 중 *truje*, *vide* 같은 고어 형태와 중세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haiga*, *vaiga*와 유사한 형태, 그리고 *merendemos*, *caminemos* 같은 부정과거형태 등이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전 세기에 보편적이고 문학적으로 사용되던 *h yamos*, *h yais*,

¹⁴⁾ 이것은 Casares가 1951년 지적했듯이 소유 소속 관계를 동격 같은 다른 것과 보다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동일한 전치사의반복을 막고자 마지막 위치가 아닌 곳에서 외국어 형태를 따라 일부 요소를 생략하려는 현상이 이에 속한다.

t ngamos, t ngais의 악센트 표기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사형태를 규칙화하려는 경향도 매우 강했다. 부정과거 2인칭 어미에 -s사용이 확장되었으며: marchastes, salistes, 불완료과거의 -ba 사용은 2, 3변화형태에서도 나타났다. 동사에 따라 이중모음이 줄기도하고 늘어나기도 했다: jugar, juegamos, apreto. 규칙동사 형태에 따라 불규칙동사를 적용시키기도 했다: anduve 대신 and 의 사용.

대명사형태로는 le smos와 la smo, lo smo 현상이 여러 지역에 혼재했다. Me, te 대명사는 se 앞에서 사용되며 명령형 앞에서도 동사 앞에 위치한다. d me가 아닌 me d 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전치사와 전치사구는 옛 형태와 사용법을 유지하여 dempu s, dende, enantes가 그대로 사용되고 전치사가 뭉쳐서 사용되기도 한다: endenantes, ir a por agua.

부사는 대중언어에서 a casa de 의 의미로 donde가 사용되기도 하고: voy donde mi primo, aqu 가 이야기 대상인 제 3자가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지시하며 사용되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빠사, 1959:305).

어휘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경향을 들 수 있는데 시골지방에서는 고어와 회화적인 속어적 표현들이 많이 유지되는 반면에 도심지역의 대중언어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고 혁신되어 은유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밖에는 끝음절을 생략하는 소리의 축소현상이 나타났다: cole< colegio, propi<propina, poli<policia.

이러한 현상 모두가 오늘날의 대중스페인어를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어휘의 생성은 보편화되어 cine, foto, moto, neto 등의 현대 언어에서도 그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도심의 어휘 또한 은어나 집시 언어들의 차용을 통해서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

VI. 나가는 글

중남미 스페인어는 현재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방언과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안달루시아 방언이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에 관계된 여러 이론을 비교해 봄으로써 중남미 스페인어가 안달루시아 방언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형성과 변화를 거쳐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남미 스페인어는 초기형성에 있어서 안달루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기타 스페인 중북부의 방언의 영향, 역시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들이 혼합되고 변화하면서 오늘의 중남미 스페인어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중남미에서의 스페인어의 변천은 반도 중남부를 포함한 스페인 본국에서의 스페인어의 변화 발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복 후 계속적으로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그 이민자들에 따라 신대륙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남미 스페인어는 완전히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가졌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나마 거주 지역에 따라, 이민자의 출신에 따라 스페인 내의 방언이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스페인어의 모습을 언어학적인 면에서 관찰해본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음성, 음운론적인 면으로 그 대부분이 안달루시아 방언과 일치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적인 차이도 보이며 특히 16-17세기에 스페인 내에서 음운적 혼동양상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중남미 스페인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특히 중남미 스페인어가 스페인어의 또 다른 방언의 하나로 간주되는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16-17세기 스페인어 속에 나타나는 대중적 특징을 찾아

보았다. 그 대중적 특징은 교양 규범 스페인어와는 달리 구어적인 면에서 오히려 중남미 스페인어와 맥을 같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늘의 중남미 스페인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단순한 언어현상 뿐 아니라 정착 초기에 전해지는 스페인어의 특징을 알고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현재의 중남미 스페인어 속에 나타나는 다양함이나 이질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넓은 중남미 각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성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Abstract

La cuestión de la formación y evolución del español de América ha llamado la atención de los especialistas desde comienzo del siglo XX. El español hablado en América era una prolongación de los dialectos peninsulares meridionales. Esta opinión fue compartida y defendida sucesivamente por varios lingüistas. Sin embargo algunos empiezan a matizar y reconsiderar su punto de vista. Y se propone la tesis de las grandes zonas lingüísticas, andalucistas, en las costas, y castellizantes, en el interior. Desde nuestro punto de vista, creemos que en las islas caribeñas, también hay influencias de varias regiones peninsulares. Por lo tanto, a pesar de la predominancia del andalucismo en la cristalización del español americano, no podemos descuidar la presencia de otras variedades dialectales peninsulares. En este estudio, presentamos sucintamente los rasgos más importantes del español del siglo XVI y comienzos del XVII, lengua en proceso de transformación y sedimentación, con características regionales y populares, que fue el español de los conquistadores y los primeros colonizadores.

Key Words: el espa ol de Am rica, andalucismo, el espa ol popular / 중남미 스페인어, 안달루시즘, 대중 스페인어

논문투고일자: 2003. 4. 24

게재확정일자: 2003. 5. 17

참고문헌

- 김현창(1980), 『스페인어 발달사』, 신아사, 서울.
- 서경석(2001), 「중남미 스페인어의 형성과 특징」, 현대문법연구, No. 23, pp. 189-202.
- _____ (2002), 「로망스어와 중남미 스페인어」, 서어서문연구, No. 24, pp. 25-38.
- _____ (2003), 「스페인어에 나타난 불어의 영향」, 현대문법연구, (예정)
- Alarcos Llorach, E.(1961), *Fonología española*, 3a ed., Madrid: Gredos.
- Alonso, A.(1953), *Estudios lingüísticos. Temas hispanoamericanos*, Madrid: Gredos
- Alvar, M.(1977), *Dialectología hispánica*, Madrid: Gredos.
- _____ (1979), “Propagación de la norma lingüística sevillana”, *Arbor*, No. 408, pp. 23-38
- Alvarez Nazario, M.(1987), “Orígenes del español en Puerto Rico” en *ACIEA I*, San Juan, pp. 33-45.
- Boyd-Bowman, P.(1964), *Índice geográfico de cuarenta mil pobladores españoles de América I (1493-1519)*, Bogotá: Instituto Caro y Cuervo.
- Casares, J.(1950), *Introducción a la lexicografía moderna*, Madrid: CSIC.
- Catalán, D.(1989), *El español, orígenes de su diversidad*, Madrid: Ctedra.
- Fontanella de Weinberg, M.(1993), *El español de América*, 2a ed., Madrid: Gredos.
- Frago García, A.(1993), *Historia de las hablas andaluzas*, Madrid: Arco/Libros.
- Friede, J.(1966), “Los estamentos sociales en España y su contribución a la emigración a América”, *Revista de Indias*, pp. 13-104.
- Galmés, A.(1962), *Las sibilantes en la Rumania*, Madrid: Gredos.
- Granda, G.(1994), *Español de América, español de África y hablas criollas hispanicas, cambios, contactos y contextos*, Madrid: Istmo.
- Henríquez Ureña, P.(1921), “Observac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RFE*, No. 7, pp. 357-390.

- Iordan, I. y Manoliu, M.(1989), *Manual de lingüística románica*, 2 Vols., Madrid: Gredos.
- Lapesa, R.(1957) “Sobre el ceceo y el seseo andaluces” en *Estructulaismo e historia, Miscelánea Homenaje Andr Martín*, La laguna-Canarias, Vol. I, pp. 67-94.
- _____ (1959),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 _____ (1964), “El andaluz y el español de América” *PFLE*, No. 2, pp. 173-182.
- Lipski, J. M.(1994),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Ctedra.
- Ldtke, J. y P. Matthias (ed.)(1994), *Lengua y cultura en el Caribe hispánico*, Tbingen: Niemeyer.
- Malmberg, B.(1974), *La América hispanohablante*, Madrid: Istmo.
- Martinell Gifre, E.(1988), *Aspectos lingüísticos del descubrimientos y de la conquista*, Madrid: CSIC.
- Menéndez Pidal, R.(1962), “Sevilla frente a Madrid, algunas precis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en *Estructulaismo e historia, Miscelánea Homenaje Andr Martín*, La laguna-Canarias, 3 Vols., pp. 99-165.
- Munteanu, D.(1994), “Sobre el territorio de formación de la lengua rumana”, *Philologica Canariensia*, pp. 301-322.
- _____ (1996), *El papiamento, lengua criolla hispánica*, Madrid: Gredos.
- Navarro Tomas, T.(1948), *El español en Puerto Rico*, Río Piedras: Editorial Universitaria.
- Perez Vidal, J.(1955), “Aportación de Canarias a la población de América. Su influencia en la lengua y en la poesía tradicional”, *Anuario de Estudios Atlánticos*, Vol. 1, pp. 19-197.
- Rivarola, J. L.(1990), *La formación lingüística de Hispanoamérica*, Lima: Fondo Editorial de PUCP.
- Wagner, M.(1927), “El supuesto andalucismo de América y la teoría climatológica” *RFE*, No. 14, pp. 20-32.
- _____ (1949), *Lingua e dialetti dell’America spagnola*, Fiorencia.
- Zamora Vicente, A.(1967), *Dialectología española*, 2a ed., Madrid: Gredos.

)

미국 내 히스패닉 인종의 사회적 현황과 문화적 정체성*

*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02-A00255)** Ki-Sun Chu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cial situation and cultural identity of hispanics in U.S.A."

- I. 들어가는 말
- II. 히스패닉의 역사: 민족적(ethnic) 분류를 중심으로
- III. 사회적 현황
- IV. 문화적 정체성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신대륙 정복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앵글로색슨 문화와 라틴문화라는 대립적 구조가 그대로 복사되어 현재의 인종적, 문화적 구도를 갖게되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 대결구조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조화와 화합의 인식을 통해 유로공동체라는 범유럽적 구조로 진행된 반면,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 정복과 식민지 세대를 거치면서 두 문화의 충돌은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1898년 미서 전쟁에서의 승리로 스페인으로부터 중남미의 헤게모니를 이어 받은 미국은 20세기를 거치며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중남미를 직,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중남미 지역의 제국(諸國)이 민주화를 이루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과 미국간의 상호경제 의존도가 강화하면서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더불어 나프타(NAFTA) 등의 경제공동체에 주력하고있다. 이런 경제적 화합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은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와의 대외적 관계를 포함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스페인어권 시민들, 즉 히스패닉(Hispanic) 혹은 라티노(Latino)라 불리는 소수민족이 7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흑인(afro-american) 사회와 더불어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소수인종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민에 의해 국가를 형

성한 미국은 인종적으로는 거의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시민을 이루고 있지만, 인종적(racial)으로는 주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와 12%의 흑인(afro-american), 12.3%의 히스패닉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3%의 아시안 인들이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다.

현재 2800만으로 추산되는 (이외에, 5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을 포함하면 3300만에 이르는) 히스패닉은 카톨릭, 라틴문화,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주류사회와 구별되고 있다. 히스패닉이 거주하는 지역은 1970년대까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의 남서부 지역이었으나 1980, 90년대를 통해 미국의 동부지역에 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인과 엘살바도르 인의 뉴욕 시 진출은 괄목한 만한 것이었다.

우리사회에 미국 내 히스패닉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식된 것은 1991년의 L.A. 한인지역 폭동 사건 보도를 통해서였다. 1965년에도 흑인폭동을 경험했었던 L.A. 지역에서, 이번에는 “로드니 킹”¹⁾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의 인종적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폭동은 주류백인들의 거주지에서가 아니라 엉뚱하게 한인교포사회가 밀집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폭동현장이 보도되면서 우리는 한국인 상점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 뿐 아니라 적지 않은 히스패닉이 섞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의 폭동은 “미국의 인종문제가 전통적인 흑백간의 싸움에서 흑인과 다른 소수민족간의 싸움으로 확대되어 감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유종선, 2001: 400) 이번 사건에서처럼 80년대 이후 미국의 한인사회는 삶의 현장에서 미국의 주류사회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본 연구는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히스패닉에 관한 연구가 한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만큼, 히스패닉 인종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980년에 들어오면서 중미의 엘살바도르와

15)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인종폭동으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다수가 히스패닉 사상자였다(이주영 외 공저, 1996: 398).

니카라과에서 다수의 이민이 유입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의 남미지역 이민들로 마이너 히스패닉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만, 치카노(chicano, mexican-american), 푸에리토리칸, 쿠반 아메리칸(cuban-american)의 3대 메이저 히스패닉 민족이 히스패닉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2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의 사회적 구조를 멕시코-아메리칸의 인권투쟁의 역사와 멕시코-아메리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간접적으로 히스패닉의 인권과 경제에 영향을 주고있는 미-멕시코 국경무역지대를 따로 다루었다. 3장에서는 히스패닉의 문화적 정체성을 카톨릭 교회와 스페인어 사용, 치카노 문학 등을 통해 분석한다.

II. 히스패닉의 역사: 민족적(ethnic) 분류를 중심으로

미국 내 히스패닉에 대한 인종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우선은 히스패닉이란 용어가 주는 지리-언어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히스패닉 인종이 역사 속에서 미국 주류사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국(INS)에서는 “미국 내 거주하는 스페인어 사용자”로 정의하고, 이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거주"의 개념은 “the legal resident alien with green card”, 즉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히스패닉의 이민과 정착의 역사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그리고 주변 중남미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있다. 1848년의 과달루페-이달고 조약, 1898년 미서전쟁, 1910년대의 멕시코 혁명, 1959년의 쿠바혁명 등 역사적 굴곡마다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고, 오늘날 히스패닉의 주요세력은 언급한 역사의 굴곡을 계기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민법이 형성되고 합법적 이민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1923년 이민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 1888년 중국인의 입국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민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타국가 출신의 이민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히

스패닉의 불법 입국과 정착도 미국의 경제공황기를 중심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898년 미서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지배를 받게되고, 이 지역의 시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된다. 이들은 멕시코가 미국의 남서부 지역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과는 다르게 동남부의 플로리다 주(쿠바인의 경우)와 동부의 뉴욕(푸에르토리칸의 경우)에 정착했다.

1980년대는 히스패닉 이민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형성하는 리오브라보 -미국에서는 리오그란데라 불린다- 를 통해 멕시코 뿐만 아니라 중미와 남미에서 멕시코를 경유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이 이루어진다. 히스패닉 민족분포의 핵을 이루었던 멕시코 아메리칸(mexican-american), 쿠반 아메리칸(cuban-american) 그리고 푸에르토리칸 외에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서 대규모 인구가 미중동부 대서양 주 (Middle Atlantic States)에 정착하면서, 히스패닉 민족적 분포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1. 멕시코 아메리칸(mexican-american): 한번의 정착과 세 번의 물결

멕시코의 미국 이민역사는 1920년대 이민법의 발효와 미국의 대공황을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이민의 동기와 사회계층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인다. 1920년대 이전 미국에 정착했던 멕시코 아메리칸들은 오늘날 대부분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미국의 주류사회에 흡수되어 이후의 동포사회와 가까운 유대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1920년 대 이전 멕시코 아메리칸의 형성은 1840년대 미-멕시코 영토분쟁과 1910년대 멕시코혁명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또 1920년대 이후 멕시코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시기는 1942-1964년 동안 양국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 Program) 기간과 80년 대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최초의 미국시민이 되었던 멕시코 아메리칸은 1848년 미국과 멕시코 영토 분쟁의 결과였던 과달루페-이달고 조약(Guadalupe-Hidalgo)의 체결에 의해 자신들이 경작하던 토지에 그대로 정착한 시민들이다. 이 조약으로 이미 유일하게 미국이 인정한 독립국가였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된 텍사스를 비롯해 현재 미국의 남서부가 멕시코 영토에서 미국의 영토로 바뀌게 된다. 이 곳에 거주하던 멕시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이 되었고 미국 역사에서도 최초의 공식적인 의미의 히스패닉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민으로 나라가 형성된 미국의 역사에서 이들은 엄밀한 의미의 이민이라기보다는 신대륙 정복시대와 식민지시대를 거쳐 현재 미국의 남서부 지방, 특히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던 원주민이었다. 오늘날 이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민족적으로 미국의 주류사회에 흡수되어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후의 동포이민세력과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대 진행되었던 멕시코 혁명은 정치적 동기로 미국에 온 유일한 멕시코 이민세력이다. 혁명기간 동안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수차례의 내정간섭을 했고 혁명세력에 반대하는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다는 면에서는 이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분명한 국경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조의 땅을 다시 찾는 국토회복(Reconquista)의 의미가 보다 크다 할 수 있다.¹⁾ 진정한 의미의 멕시코-아메리칸 이민 1세대인 이들은 원주민이었던 선조와 큰 세대 차를 보인다. 동시에 민중 봉기의 성격을 띤 멕시코 혁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동적 입장을 가진 멕시코 내의 부르주아 계층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피해 아메리칸 드림을 품에 안고 왔던 이

16) 최초의 미국 이민법인 “중국인 제외법(Chinese Exclusion Act)”이 188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혁명기간의 멕시코 이주자들을 이민으로 봐야하지만 당시의 이민법이 중국인 노동자들만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현재적 의미의 이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24년 “국적기원법(National Origins Law)” 이전 미국 입국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로, 국적기원법 이전에 입국한 멕시코인에 대한 인구통계는 없다.

후 동포이민세력과의 융화되기 어려웠다.¹⁷⁾

히스패닉 세력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과 정착은 노동력이 필요한 부자나라와 경제적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하는 가난한 나라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위치한 리오그란데는 21세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 미국과 멕시코는 경제협력의 방안으로 공식적인 협정을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1942년부터 1964년까지 진행된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미국의 남서부 농업지대가 수확기를 맞아 늘어나는 계절적 노동력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멕시코 노동자는 3개월 혹은 6개월의 한시적 노동비자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근교에 위치한 소규모 봉제 공장으로까지 확대되어, 보다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가게 되었다. 이민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은 고용주들에게는 뿌리치기 어려운 매력이었다. 당시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국경을 넘은 멕시코 노동자는 총 4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수의 멕시코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체류했고 멕시코-아메리칸 형성의 두 번째 물결이 된다. 단순 노동자들이 대다수였던 이들은 멕시코 농촌지역 출신이 많았고 지적 수준도 멕시코 이민역사에서 가장 낮았다. 그런 이유로 미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끝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역사에는 주기적으로 국가형성을 위한 도약의 시대가 있었는데, 1880년 대륙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인 노동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2차

17) 치카노라는 용어가 미국의 백인들이 멕시코 이민 노동자를 경멸적으로 부르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백인주류세력 보다는 멕시코-아메리칸 내부에서 지배적 계층이 하층민을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불렀다는 데 바로나(De Varona)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하던 시기에 멕시코 단순노동자가 백인 주류세계와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De Varona, 1996: 55).

대전 이후 냉전 시대 초강대국 형성과정에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멕시코 노동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64년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멕시코 정부는 미래의 실업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경제프로그램(Programa de Economía Fronteriza)을 기획하고 미국과 공조 작업에 들어간다. 이른바 마킬라 산업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선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으려는 새로운 노동력을 이곳에 묶어 둬므로서 멕시코 불법이민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기도 했다. 마킬라 산업의 발효와 함께 실제로 멕시코 이민은 당분간은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80년대 초 멕시코 폐소화 폭락과 국가 모라토리움 선언 같은 경제적 비극과 함께 리오 브라보 대이동은 재개되었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세 번째 멕시코 이민 세력은 몇 가지 면에서 선배 이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노동자들로 구성된 브라세로 이민의 대부분이 멕시코 농촌지역의 하층계급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멕시코 이민세력은 화이트칼라 전문직에서부터 중산층 테크니션 그리고 미숙련 단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Trueba, 1999: 48) 동시에, 종전의 멕시코 이민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집중적으로 정착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을 따라 지역적으로 보다 확장된 정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이제 멕시코 국경은 자국의 국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한 월담의 장소일 뿐 아니라, 멕시코 남쪽에 위치한 모든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의 중간 거점지가 되었다는 점이다.¹⁾ 이들은 멕시코 옛 영토였던 현재 미국의 서남부에 주로 거주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선조의 옛 거주지에 대한 국토회복

18) INS에서는 다음 5가지로 히스패닉을 분류하고 있는데: 1) permanent immigrants 2) temporary immigrants(braceros) 3) illegal immigrants 4) commuters 5) daily trippers, 이중 정기적인 국경 통근자(commuters)와 부정기적 일일 노동자(daily trippers)는 이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Reconquista)의 인식이 깔려있다.

2. 푸에르토리칸(Puerto Rican): 이민과 독립 사이에서

1898년 미서 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푸에르토리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다. 1900년부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연방국(Commonwealth, Protectorate, Estado Libre Asociado)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미국 내에서 푸에르토리칸의 경우 이민으로 간주되지 않고 국내에서의 인구의 이동으로 간주된다.

푸에르토리코는 아라와카(arawak) 인디언이 살던 곳으로 콜럼부스는 2차 항해 때 이곳을 탐험하고, 아라와카 인디언을 원주민어로 평화라는 의미의 타이노(taino)라고 부르게 된다. 현재의 지명은 1508년 환폰세 데 레온(Juan Ponce de León)이 이곳을 정복하면서 명명한 것으로, 이때부터 스페인 정부는 백인 거주지역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영토를 주어 사탕수수, 커피, 담배를 경작하는 집단 농장을 운영한다. 1511년 타이노들의 대규모 노예반란이 있었고 이때 약 6,000명의 원주민이 학살되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스페인 정부는 흑인 노예 수입을 시작한다. (Novas, 1994: 147) 다른 카리브 국가들처럼 푸에르토리코의 인종적 정체성은 이 시기에 확립된 것이다. 또한 백인들이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해왔지만 문화적으로는 아프리카의 흑인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특히 흑인들이 가지고 왔던 천연두에 면역성이 없던 원주민들의 대규모 사망으로 발생된 문화적 공백을 자연스럽게 흑인문화가 대체하게 된다. 뉴욕의 푸에르토리칸 게토(ghetto)에서는 자신들을 보리구아(boricua)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는 흑인 혹은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적 자부심이 들어있다.¹⁹⁾

민족적 의식이 없던 푸에르토리코가 국가 의식을 갖게 된 것은 1700년 알레한드로 오렐리(Alejandro O'Reilly) 제독이 통치하면서부터

¹⁹⁾ 1960년 대 뉴욕을 무대로 하는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West Side Story*에는 당시의 보리구아 게토에서의 인종 갈등이 영화 스토리의 축을 이루고 있다.

다. 이전까지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실제로 소득이 없었는데 오렐리 체독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독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타 중남미 국가가 독립한 이후에도 푸에르토리코는 쿠바와 더불어 스페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1868년부터 루이스 무뇨스 리베라(Luis Muñoz Rivera)가 이끄는 “개혁당”을 중심으로 “자유 십계명”의 기치 아래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1897년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내었고, 이듬해 7월 17일 독립정부를 구성했으나 일주일 후 미서전쟁의 발발로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은 유보된다.¹⁾

1900년부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보호국(protectorate)이라는 애매한 국가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독립도 아니고 미국의 한 주로 소속되지도 않은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루이스 무뇨스 리베라의 아들인 루이스 무뇨스 마린(Luis Muñoz Marín)이 통치자가 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때 자국에서는 국가정체성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이 거론되었다. 독립인가, 그대로 보호국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한 주로 귀속될 것인가. 당시에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권한은 자국민이 아닌 미 의회의 의결 사항이었다. 결국 미 의회는 보호국의 명칭을 자유연방국(Free Associated State)으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고, 사실상 보호국과 다를 것은 없었다.¹⁾

대규모 푸에르토리칸이 섬을 떠나 미국 본토에 정착하게 되는 시

20) 당시 독립군을 마체테로(machetero) 라고 불렀는데 이말은 ‘마체테(machete)를 사용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마체테는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들이 사탕수수를 자를 때 쓰는 칼이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보호령이 된 이후 마체테로는 완전독립을 위한 지하조직으로 계승되었다. 1954년에는 마체테로가 주축이 된 지하테리조직이 트루만 대통령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21) 1964년 푸에르토리코는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61%가 현 상태를, 39%가 미국의 주를 선택하였고 독립을 원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1993년에 실시된 동일한 목적의 국민투표에서는 48%가 현 상태를, 46%가 미국의 주가 되기를, 4%가 독립을 원함으로써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990년 미국 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주가 될 경우, 10만개의 푸에르토리칸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73%의 정부 투자가 감축되며, 총생산이 3.3% 감소됨으로써 1990년 기준으로 실업률이 16%에서 30%로 증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었다. (Chavez, 1991: 132-133)

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중 만 여명의 푸에르토리칸이 여러 형태로 미군에 참가했고, 전후 이들의 대다수는 섬으로 귀환하지 않고 뉴욕을 중심으로 정착했다. 20세기 후반 의료시설의 혜택으로 푸에르토리코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본토로의 이주를 강화시킨다. 이주는 특히 1960년 대 중반까지 급증하였다. 초기에는 롱아일랜드 감자농장, 뉴저지의 과일농장, 코네티컷의 담배농장, 미시간의 사탕농장 등 농업분야의 이민이 중심을 이루었다가, 차츰 뉴욕의 가먼트 디스트릭(Garment District)의 도시 노동자로 변모한다. 이 곳은 오늘날도 대다수의 뉴욕 거주 푸에르토리칸의 게토 지역으로 엘 바리오(El Barrio)라고 부르는 일종의 스페니쉬 할렘 지역이 형성되었다.

1990년 기준으로 푸에르토리코 650만의 총 인구 중 250만이 미국 본토에 살고, 그 중 약 100만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시에 집중되었던 인구분포가 변화되어 일리노이즈 주에 약 13만의 푸에르토리칸이 거주하고있고, 나아가 텍사스 지역까지 지리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쿠반 아메리칸(Cuban-American): 고향을 바라보며

쿠바는 신대륙 발견이후 지속적으로 스페인의 대 아메리카 정복 사업의 교두보의 위치에 있어 왔다. 이런 이유로 스페인에게 있어 쿠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었고 쿠바에 대한 점유권을 놓고 스페인과 영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특히 하바나는 수 세기동안 스페인과 영국이 지배권을 번갈아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왔을 만큼 강대국의 이권이 작용하여왔다.

영국이 쿠바를 지배하고 있던 1763년 이 지역에 흑인 노예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쿠바는 이 때부터 커피, 담배, 사탕수수 같은 주요 작물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원주민들의 인구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18세기 하바나는 신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하나로 성장한다. 푸에르토리코가 보여주었던

문화적 형성과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런 경제, 정치적 양상은 필연적으로 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원주민 문화가 사라져가고, 백인들은 정치, 경제적 동기로 이 곳에 임시로 체류할 뿐, 근본적으로 이곳에 정착하지 않음으로서 흑인문화가 정착되어 오늘날 쿠바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프리카 쿠반(African-Cuban)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쿠바문화의 주류가 흑인아프리카 문화가 된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쿠바 흑인 노예들의 특별한 사회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스페인과 영국의 노예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에 다른 카리브 지역보다도 흑인 노예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이다. 쿠바 노예들은 “코아르타시온(coartación)”이라는 -노예가 주인과 자신의 자유에 대한 협상하는- 계약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역사적으로 쿠바 흑인 노예가 누렸던 보다 자주적 권한을 느낄 수 있다.

쿠반 아메리칸의 이민은 푸에르토리코처럼 미서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다. 1902년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지만, 전쟁 후 쿠바의 지배권을 장악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로 쿠바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다. 초기 쿠바이민은 쿠바혁명기 이민세력의 정치적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유가 컸고 이들은 주로 쿠바에 인접한 플로리다 탐파 베이(Tampa Bay)와 키 웨스트(Key West)에 정착한 담배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쿠바는 사탕수수 단일작물 경제(single-crop economy) 체제로 말미암아 사탕수수 재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국가경제가 종속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은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정책에도 교묘히 이용된다. 1956년 쿠바혁명 직전까지 쿠바 경제는 미국의 사탕수수 수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었고, 쿠바는 미국의 타락한 유흥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쿠바혁명은 카스트로가 천명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를 향한 이데올로기 혁명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호세 마르티의 주체의식을 계승하고 경제적으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민중혁명이었다. (로버트 퀴크, 2002: 242-244)

미국으로의 대규모 쿠바 이민은 쿠바혁명 이후 지금까지 “보트피플”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초 쿠바혁명 직후와 1980년 마리엘리토(marielitos) 추방 사건 때이다. 이 사건은 1980년 카터 행정부 시절, 반체제 국민들에 대한 카스트로의 감정적 보복에 의한 것으로 카스트로는 12만 5천 명의 정치범과 정신병 수용자를 새우잡이 배에 실어 마리엘(Mariel) 항구에서 미국의 키 웨스트(Key West)로 추방하였고, 미국에서는 다시 정치적 난민으로 분류되어 집단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쿠바에서 정신병동 수용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이후 7년 동안 재판 없이 미국의 교도소에서 수감되면서 미국 거주가 보류되었다가 1987년 미국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었다(로버트 퀴크, 2002: 703-709).

쿠바 혁명 이후의 이민세력은 혁명과 카스트로 일당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난민 혹은 망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대부분 라티퐁디오(latifundio)의 소유자였고 동시에 지식인이나 고학력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혁명 직후의 이민은 바티스타 독재정권 시절 관료나 화이트칼라 계층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런 성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쿠바 이민은 그런 배경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 지적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고 인종적으로도 백인(caucasian-cuban)들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다른 히스패닉에 비해 미국 주류 사회에 빠르게 동화되었다. 현재 이들의 대다수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쿠바와 플로리다 사이에는 불과 127 킬로미터의 바다가 놓여있을 뿐이다. 쿠반 아메리칸이 플로리다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고향에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마이애미는 쿠바이민 정착 후 미국 내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관광과 은퇴자들을 위한 레저 산업과 국제금융으로 도시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리틀 하바나(Little Havana)는 마이애

미에 있는 쿠바 타운을 부르는 말인데, 특히 까이에 오초(Calle Ocho)는 쿠바 상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본국에 대한 향수가 없는 쿠바 아메리칸 신세대는 점차 이곳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고, 부족한 노동력을 새로 이주한 니카라과 이민들이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적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III. 사회적 현황

히스패닉 인종은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흑인 인구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종문제 관련된 이슈에 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오랜 이민전통과 대규모 인구에 상응하는 정치적 세력도 미비하다. 노동의 질을 알려주는 피라미드 구조에서도 히스패닉이 저임금 노동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빈곤은 히스패닉 사회에서 세대로 전승되고 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적은 혜택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¹⁾ 상황을 인식한 히스패닉은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인종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

1. 치카니스모: 역사의식과 인권운동

오로지 이민의 역사로 형성된 쿠반-아메리칸이나 푸에르토리칸과

22) 뒤그난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민족별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은 멕시코 아메리칸 29.7%, 푸에르토리칸 28.1%, 쿠반 아메리칸 14.7%, 도미니칸 아메리칸 3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히스패닉 전체가 미국 내 소수 민족에서도 빈곤층의 분포가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빈곤은 또 교육과 연관되어 낮은 진학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8학년 이하 (즉,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수 비율의 경우, 백인 8.9%, 아시아계 12.9%, 아프로 아메리칸 13.8%, 아메리칸 인디언 14.0% 와 비교해 히스패닉의 경우 30.7%에 이르고 있다(Duignan, 1998: 201-202).

는 다르게, 미국 남서부 지방에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던 치카노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역사의식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쿠반-아메리칸의 역사적 정체성은 본토 쿠바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논의되는데 반해, 치카노는 본토 멕시코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역사의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멕시코 역사를 초월하는 치카노 역사의 재해석은 필연적으로 신화적 접근을 유도하게 된다. 이 신화에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존재했으며 아스텍 부족의 기원이 된다고 가정된 아스틀란(Aztlán) 왕국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다(Griswold al Castillo, 1991: 87-89).

아스틀란과 관계된 치카노 역사의 신화적 해석과 관련하여, 1969년에는 의미 있는 두 가지 학술적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었고, 이후 정기적 세미나로 진행되었는데, UCSB(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학술모임과 콜로라도 덴버에서의 “치카노 청소년 해방회의(Chicano Youth Liberation Conference)”가 그것이다. 치카노 청소년 해방회의에서는 “아스틀란의 정신적 플랜 The Spiritual Plan of Aztlán”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치카노 역사에 대한 신화적 재해석과 급진좌파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것이었다. 선언에 의하면 치카노는 선조의 고향인 아스틀란에서 유래한 사람들로, 그들은 원래 태양의 아들로써 “청동문화를 향유하는 청동 인민 a bronze people with a bronze culture”이며 자유로운 부족들의 연맹이다. 이 땅은 태양신으로부터 물려받아 청동인민들의 이마의 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인과 침략자 그리고로부터 빼앗긴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Griswold al Castillo, 1991: 92). 이런 과정을 통해, 아스틀란이란 신화적 이미지는 치카니즘을 상징하는 역사적 이미지로 변모된다. 1970년에 출판된 급진적인 성격의 문화예술 잡지 『아스틀란: 사회과학과 예술에 대한 치카노 저널(Aztlán: Chicano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and the Arts)』은 아스틀란의 이미지를 문화적 급진운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아스틀란과 함께 치카노의 역사의식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미지는 “알마 치카나(Alma Chicana)”이다. 급진적 치카노 역사주의자인 아르만도 렌돈

(Armando B. Rendon)은 이 표현에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알마 치카나는 "하나의 인종(Raza Unida)"이란 개념을 낳았는데 우주적인(cosmic) 치카노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즉 치카노는 단일 민족으로 우주와 조화된 정통한 존재인 반면 앵글로-아메리칸은 수많은 문화-인종적 결합이 빚어낸 잡종으로서 그들의 문화는 용광로(melting pot)에서 합금된 정제 불명의 문화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미국의 문화는 개인적 존엄을 거스르는 파괴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ndon, 1989: 187). 아스틀란과 연관된 신화적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렌돈의 해석에서 우리는 열등의식이 깔려있는 과장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카니스모의 역사 의식에는 피해자로서의 과잉된 흥분이 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은 역사상 인권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이다. 소수민족, 젠더와 페미니즘, 베트남 전에 대한 반전의식, 기성 세대에 대한 반문화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개혁적 의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1964년 존슨 행정부의 "민권법 (Civil Rights Act)"은 일련의 변화를 수용한 혁명적 조치였다. 1965년에는 민권법을 실천적으로 보완하는 후속법안들이 가결되는데, 노인의료법(Medicare), 초중고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반문화(counterculture)는 정치적으로 신좌파적 경향 -마오, 체에 대한 신세대의 열광-으로, 종교적으로는 뉴에이지와 신흥종교의 유행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확장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소수인종 세력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인권운동이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같은 시기에 농장을 중심으로 히스패닉의 인권운동이 전개된다. 흑인인권운동이 뉴욕,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히스패닉인권운동은 세사르 차베스(Cesar Chavez)를 중심으로 하는 농장노동자가 중심이 된다. 차베스는 1966년 "전미 농장노동자 연합(NFWA: National Farm Workers Association, 1970년부터 UFW:

United Farm Workers로 명칭 변경)”을 결성하고 최초로 농장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계약과 임금투쟁을 시작한다. 전국노동자연합은 1968년 포도 수확기에 캘리포니아 지역 가정용 포도 수확작업을 거부함으로써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농장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1970년대 투쟁과정을 통해 마침내 1977년 파업은 정당한 계약을 이끌어냄으로서 결실을 맺게 된다. 1980년대 UFW의 노동운동은 보다 구체적인 노동환경으로까지 확장되는데, 포도밭에 유해성 농약살포를 거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Novas, 1994: 119).

히스패닉 농장노동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차베스의 존재는 멕시코 혁명의 모렐로스 지역 농부들에게 미친 사과타의 존재와 유사하다. 도시노동자에 비해 결속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장노동자에게 정신적으로 사과티즘을 계승하고 실천적 투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차베스는 히스패닉 뿐 아니라 미국전역의 농장노동자들에게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다.

2. 미-멕시코 이민정책과 MexAmerica의 탄생

미국 정부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히스패닉에 대해 관용적 이민 정책을 시행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실시되면서, 저임금 멕시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상승을 막고, 자신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피해의식이 백인들 사이에서 팽배해지면서 히스패닉에 대한 이민정책은 변화를 맞게 되고, 미국 정부는 멕시코 이민에 대한 중립적 자세에서 억제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특히 브라세로 프로그램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멕시코 이민이 급증하게 되는 80년대에는 히스패닉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고용과 복지 그리고 교육 예산의 상당분이 그들에게 분배되면서 반이민 감정은 고조된다. 특히 불법체류자에게까지 허용되는 교육과 의료 혜택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86년 멕시코 아메리칸이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이민 개혁 및 통제법안(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을 부분적으로 사면해주는 당근과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법적으로는 제재한다는 채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불법이민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였으나, 사면 조치가 활성화된 반면 제재조치는 거의 실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 이민 수를 늘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2년 후인 1996년 미 의회는 히스패닉을 겨냥한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 이민법안으로 평가되는 “불법 이민개혁법안(IIRIRA: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을 통과시킨다. 이 법안은 이민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불법은 물론 합법적 이민에게도 푸드쿠폰과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부항목까지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수정되었다. IIRIRA는 불법 이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추적을 피해 더욱 위험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야했고, 1998년 한 해 동안 국경을 불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한 사람의 수는 189명으로 최고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허술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경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과르디안 작전 (Operaci n Guardi n)과 같은 기술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¹⁾ 과르디안 작전 수행 1년 후, 산디에고 지역 불법이민은 46% 감소되었으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넬리우의 조사에 의하면 작전이 발효된 후 15 개월 동안 불법이민 고용에 있어, 사용자 중 8% 만이 고용이 감소를

23)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철폐되고 지구의 다른 쪽 미-멕시코 국경에는 새로운 장벽이 형성되었다. 과르디안 작전의 장벽은 마약 은둔장소 따위를 감식할 수 있는 장치를 비롯해, 도난 자동차번호판 탐색장치 등 첨단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처음에는 산디에고와 티화나 쌍둥이 도시 사이 설치된 수십 킬로미터의 잡초지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에서 시작된 이 장벽은 다른 쌍둥이 도시들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불법입국자의 80%는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고, 순찰강화는 불법이민으로 하여금 보다 위험한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 국경 길잡이 코요테(coyote)의 가격도 더 높아지고 있다(Fernandez del Castro y Dominguez I., 2002: 252-253).

체감했을 뿐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감소를 체감하지 못했고 오히려 증가를 느낀 사용자들도 있다(Cornelius, 2001: 133). 결국 과르디안 작전은 미국에 대한 폐쇄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일단 입국에 성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간 체류하려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이민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공식적 정책 표명을 피해오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미국의 문을 개방하라는 지속적 요구를 전개해 왔다. 즉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무소신의 정책(*la política de no tener una política*)으로 일관하는 한편 현 상태에 만족하고 이민을 고의적으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미국정부와 이민문제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지 논쟁을 피하려는 멕시코정부의 입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1990년대 초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95년 멕시코 국무장관 호세 앙헬 구리아(José Ángel Gurría)가 표명했던 이민에 대한 양국의 공조 필요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멕시코 정부의 변화된 자세는 미국 내 멕시코 이민에 대한 적대감이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멕시코 관료들 스스로가 인식한 결과이며 동시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국 간 제반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일반화된 결과이기도 했다. 90년대 후반에는 이민에 대한 멕시코정부의 정책과 조치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정부와 당사자간 갈등보다는 멕시코-아메리칸 계가 멕시코정부의 변화된 자세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국민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Fernández de Castro y Domínguez I., 2002: 281).

19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적 호황은 이민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IIRIRA의 강력한 반 복지정책에도 일부 수정을 가하게 했다. 하지만 공화당 부시 정부의 전통적인 배타성과 미국 경제의 변화에 따라 반이민의 분위기는 언제라도 부활할 것이다. 또한 마약밀매 문제는 이민에 대한 양국의 협의에 있어 늘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멕시코 이민이 지난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세 가지 요소, 즉 미국의 단순 노동력(*mano de obra*) 부족,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체계적인 이민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을 보내는 국가라면 미국은 가장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다. 1996년 통계에 의하면 단순 방문자를 제외하고, 한 해 동안 1,191,000명의 멕시코인이 미국에 입국했다. 이중 91만 6천명은 합법적 입국이었고 27만 5천명은 불법으로 입국한 숫자였다. 합법적 이민과 불법이민을 모두 합하면 매해 미국에 정착하는 멕시코인은 30만 3천명에 달한다.¹⁾

멕시코 이민은 지난 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1970-90년대 사이에 급증했고 21세기를 맞아 증가율은 크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미국에 영주하는 멕시코인은 5배 증가했다. 멕시코인 아메리칸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 2.2. %에 그쳤으나 1996년에는 6.8% 로 급증했고 21세기에는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인 아메리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미국 내에 멕시코인 아메리칸의 출생율이 높음에도 기인하지만 새로운 유입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¹⁾

멕시코인 아메리칸의 절대적 인구증가는 중미의 새로운 이민(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이 히스패닉 내의 민족간 분포에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의 히스패닉 사회에서 멕시코인 아메리칸이 차지했던 비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이런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응하여 타민족 히스패닉은 시간이 가면서 멕시코인 아메리칸이라는 히스패닉 주류 인종에 정신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인 아메리칸의 인권, 고용, 교육, 종교 등 제반 요소들의 변수는 전 히스패닉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이민정책은 멕시코인 아메리칸에 통제에 역

²⁴⁾ 1996년 기준 미국 내 불법 거주자의 55%는 멕시코인이 그리고 7%의 엘살바도르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Portes y Rumbaut, 1996: 233).

²⁵⁾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인 아메리칸의 숫자는 20년대에서 70년대 감소했으나, 전체 멕시코인 아메리칸 인구 대비로 볼 때 1970년의 16.7%는 1996년의 37%로 증가되었다 (Garc a J. E., 2000: 188).

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79에 출판된 조엘 가로(Joel Garreau)의 『북미의 국가들(The Nations of North America)』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를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개념의 국가”, 즉 “멕스아메리카(MexAmerica)”로 정의한다. 그는 멕스아메리카를 “뜨겁고 건조한 토양을 토대로 음식과 언어가 서로 섞이고, 문화적으로 역동적이고 유연한 열린 공간”으로 묘사한다(Garreau, 1979: 23). 가로가 멕스아메리카의 개념을 국경지대에 국한시켜 지리적 개념으로 본 것과 달리, 레스터 랭글리(Lester Langley)는 10년 뒤 이 개념을 보다 확장한다. 그는 멕스아메리카를 시카고, 피츠버그, 멕시코 시티 등의 대도시에서 정치, 경제, 문화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해석한다. 멕스아메리카는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를 가리키는 특별한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북미 전 지역에 퍼져있는 고유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Langley, 1989, 47-50).

2003년에 들어오면서 히스패닉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로아메리칸의 12%를 앞질러 12.3%를 기록했다. 그간 백인주류사회와 아프로아메리칸 사이의 대결구조로 진행되었던 미국의 인종 갈등은 히스패닉의 거점확장과 멕스아메리카의 탄생에 의해 새로운 인종적 역학관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3. 미-멕시코 국경지역과 히스패닉의 관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태평양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는 3,200킬로미터의 경계선이 펼쳐져 있다. 이중 약 100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가 이른바 “국경지역”(Border Region)에 해당된다. 국경지역은 멕시코만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북으로 향하는 중남미인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마킬라(Maquila) 플랜트는 미국의 자본과 노동력이 만나는 생산의 장소로서, 히스패닉과 직접적인 역학관계에 놓여있다. 국경지역에는 6개의

멕시코 주(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Coahuila, Nuevo Leon y Tamaulipas)와 4개의 미국 주(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Texas)가 만나고 인구는 총 1200만에 이른다. 인구의 90%가 14개의 쌍둥이 도시(ciudades gemelas)에 거주하고, 그 중 3분의 2는 미국 쪽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산디에고와 임페리얼(Imperial)에, 멕시코 쪽에서는 바하 칼리포니아의 티우와나(Tijuana)와 테카테(Tecate) 그리고 멕시코 칼리(Mexicali)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쪽 쌍둥이 도시들의 1인당 평균수입은 멕시코 쪽의 1인당 평균수입보다 2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디에고를 제외하면 미국 평균수입보다 낮은 반면 멕시코 국경지역의 평균소득은 멕시코 타 지역보다 훨씬 높다. (Fernandez de Castro y Dominguez I., 2002, 254) 쌍둥이 도시 중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는 엘파소(El Paso)-시우닷 화레스(Ciudad Juarez), 두 개의 라레도 시(Laredo, Nuevo Laredo), 브라운스빌(Brownsville)-마타모로스(Matamoros)를 들 수 있다. 반면 산디에고-티화나의 경우 시민들은 자신들이 국경지역에 살고있다는 인식이 약하고, 상대도시인 티화나의 멕시코 시민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 두 개의 노갈레스(Nogales) 도시의 경우에는 멕시코 노갈레스 시가 미국의 동명의 도시보다 6배나 크기 때문에 1997년 미국정부가 이곳에 벽을 쌓아 구별하기 전까지는 전체가 멕시코 도시로 인식되고 있었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도시 간 편차를 보이는데, 멕시코의 시우닷 화레스의 경우는 영어나 이중언어 사용자보다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다. 반면 엘파소의 경우에는 미국에 속해있음에도 이중언어나 스페인어 일방 사용자가 지배적이다. 이런 현상은 양 도시 주민들 간의 상업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페인어 상권이 지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¹⁾

²⁶⁾ 1918년 텍사스의 금주법(La Ley Seca) 실시는 엘파소의 바(bar) 소유자들이 시우닷 화레스로 이동하는 동기가 되었고 이 지역은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 미국 전역으로 금주법이 확대되면서 멕시코 국경지역의 대부분이 미국의 유흥가로 변모했다. 1980 말부터 1990년대 초에는 국경도시를 특히 티화나와 시우닷 화레스가 마약밀매의 중요거점도시가 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몬시바이스에 의하면 마킬라도라 플랜트는 "사탄화" 되었던 국경도시로 하여금 환락적 관광수입으로부터 벗어나

마킬라는 1965년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다가올 실업문제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시작되어 80년대 초 멕시코의 경제침체와 함께 활성화되었다.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적은 달러를 가지고 많은 멕시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미국 기업을 이곳으로 유치하게 되고 고용이 증대되었다. 이 때 플랜트는 600여 개에 이르게 되고, 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에는 2000개로 증가되었다. 1992년에는 약 50만의 멕시코 노동자가 마킬라도라 플랜트에서 고용되었고, 총생산은 약 190억불이었다. 이 수치는 멕시코 총 수출의 40%에 해당되는 엄청난 것이었다. 마킬라 산업은 초기에는 직물 산업 중심이었으나 90년대부터 자동차 모터, 텔레비전 부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Fernández de Castro y Domínguez I., 2002: 256).

국경지역의 고용과 환경은 지속적으로 히스패닉의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마킬라 플랜트는 미국과 멕시코 간 자본과 노동력의 생산적 결합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외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히스패닉 전체의 임금구조, 인구유입 뿐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 있어 다양한 문화인류학적 팩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파소와 산디에고 시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자국에서보다 미국 쪽 쌍둥이 도시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유형의 교환은 소비와 생산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마킬라 산업의 비약적 생산성이라는 양지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파괴라는 음지도 함께 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시신경 장애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은 이 지역의 노동자들의 대표적 질병이다. 특히 단순작업에 의존하는 플랜트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생리와 출산에 관계된 질병

건전한 활력을 되찾는 배경을 마련해 준다. 1970년대 이후 멕시코 국경지역은 “도덕적으로 재건” 되었고 산업발달은 대학의 발전으로 인한 교육제도의 활성화와 문화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Monsiváis, 2000: 17).

이나 심지어 화학물질의 오염으로 난산이나 기형아를 낳기도 한다.¹⁾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북미노동협의회(CCLAN, la Comisión para la Cooperación Laboral de América del Norte)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의 결집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착취를 합리화하기 위한 관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미국 노동기준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중반 이후 마킬라 노동자의 평균 수입과 교육 수준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그것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97년 사이에 멕시코 실질임금(salario real) 수준이 1.6% 낮아진데 비해 마킬라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수준은 0.6% 낮아지는데 그치고 있다. (Fernández de Castro y Domínguez I., 2002: 270) 불법 이민의 경우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을 오랜 기간 감내해야 하고 미국의 필수품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멕시코 국내에 묶어두는 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때 마킬라의 고유한 산업구조는 시간이 가면서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멕시코로부터의 역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국에게 지불해야하는 마킬라의 부분적 비관세구조는 나프타가 지향하는 멕시코 생산품에 대한 미국의 무관세 정책에 밀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15년 내에 마킬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시스템에 흡수될 전망이지만, 마킬라의 생산구조 자체는 미래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에도 마킬라 지역의 공장 수가 1993년 2405 개에서 1998년 4234 개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해준다. 공장 수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42만 3천명에서 백만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마킬라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과 국제무역의 교두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해가 거듭될 수록

²⁷⁾ 국경지역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Kim Myung Hye, "Female Maquila Workers and Urban Neighbourhood Movement in a Border City of Mexico", *라틴아메리카 연구*, 2002년, 제15권, 제1호 참조.

발전하고 있는 노동인력의 전문화 역시 마킬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급속한 마킬라 공장들의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은 현재 국경무역 지역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멕시코 정부는 이 지역의 산업 폐기물을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과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처리해왔다. “국경 한 쪽에서 발생한 사건은 곧 다른 쪽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국경지역 생태학에서 국가의 통제력을 바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오르메의 말처럼 (Orme, 1993: 116), 멕시코 쪽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은 미국진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처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오염자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양국간의 환경에 대한 협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국의 협상 주제에 있어 환경문제는 전통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다. 그 중에서도 양국에 걸쳐있는 리오그란데와 그 지류에 관계된 물은 가장 예민한 문제로 작용해 왔다.

1889년 발족된 “경계에 대한 국제위원회(Comisi n Internacional de L mites)”를 시작으로 양국간의 국경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조가 시작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협의는 1944년 콜로라도 강의 염분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경계와 물에 대한 국제위원회(Comisi n Internaiconal de L mites y del Agua)”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3년에는 “평화 협정(Los Acuerdos de La Paz)”으로도 알려진 양국 간 국경환경협정(Los Acuerdos Ambientales Fronterizos)이 체결되어 환경협상의 물고름 트게 되었다. 이 협정은 생태계 위기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티화나에서 산디에고에 이르는 산업용수 처리, 위험물질 육로수송, 멕시코 소노라주 북부와 미국의 텍사스주 남부에 걸쳐 구리주물공장이 배출하는 공기오염, 국경의 쌍둥이 도시의 도시공해 등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정부가 주관하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고 환경 NGO들이 탄생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에는 NGO의 활동은 멕시코에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매

우 미약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NGO는 양국이 협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¹⁾

이런 상황 속에서 1990년대 이르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몇 가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출범과 함께 몇 개의 중요한 환경기관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1 국경프로그램 (Programa Frontera XXI)”과 “국경지역 생태협동 위원회 (Comisi n de Cooperaci n Ecol gica de la Frontera)”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발효된 대표적 환경기관이다. 실천적 방향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주 정부 혹은 시 정부 규모의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까지 멕시코는 정부는 정부단위 이하의 환경협약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었고, 환경에 관한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1992년부터 이 금지가 완화되고 “국경 연락소 (MEF = Mecanismos de Enlace Fronterizo)”가 도시 간, 카운티 간 소규모 지역 단위로 구성됨으로서 일상적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¹⁾ MEF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MEF는 환경업무 뿐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의 협력관계 모색하고 있다. 2001년 티화나-산디에고 지역의 MEF 위원회는 7개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로 나뉘었다: 이민과 시민권, 도난 차량 조사, 지역 안전, 물, 교육과 문화, 국경 교량, 원활한 국경수송(Cruce R pido de Veh culos). 결국 환경 전문 위원회로 시작된 MEF는 이 지역의 히스패닉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

²⁸⁾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환경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직전까지만 해도 매일 2500만 톤의 폐수가 리오브라보에 유입되었고, 강물의 오염은 재생을 위한 기준치의 최고 165배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다. 텍사스의 산 엘리사리오(San Elizario) 시는 멕시코와 시냇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35세 미만의 주민 중 90%가 간염에 오염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Fern ndez de Castro y Dom nguez I., 2002: 264).

²⁹⁾ 1995년부터 이 위원회는 주 정부 혹은 시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어, 국경지역을 따라 8개의 MEF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의 일차적인 의무는 이민, 범죄, 법적 수속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두 지역 티화나-산디에고, 시우닷 화레스-엘파소 간의 위원회가 활성화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고 향상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¹⁾

협력관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간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설과 인원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인원들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 등 개선할 문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할 것이다.

IV. 문화적 정체성

오늘날 히스패닉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는 거의 없다. 미국 대학의 히스패닉 문화를 다루는 교양 강좌에도 교과서 성격의 적절한 책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 배경에는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히스패닉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했던 인권문화운동으로서의 치카니스모는 그런 의미에서 히스패닉 문화를 다루는데 자주 거론되는 문화운동이다. 그 이유는 치카니스모는 1960년대라는 시대적 틀과 멕시코 아메리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히스패닉 민중의 문화적 표현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대표적 문화운동이기 때문이다.

히스패닉 문화가 중남미 본토 혹은 이베리아 반도의 메트로폴리 문화와 어떤 역사적 연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이다. 메트로폴리와 중남미 문화가 히스패닉 문화의 근간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전적 메트로폴리 문화가 히스패닉 문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장에서는 민족에 대한 문화 정체성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히스패닉의 민족적 다양성, 카톨릭, 교육, 언어, 문학 등 제 영역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³⁰⁾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1995년 티화나-산디에고 간 국경수송에 관한 협력이었다. 협력의 성과로 종전에는 수송차가 국경을 넘는데 2시간이 걸렸지만 특별한 감식장치를 통해 20분으로 감소되었고, 1997년에는 경찰업무 공조체계까지 시작되었다.

에 접근하고자 한다.

히스패닉은 타 이민 세력과 민족적(ethnic), 인종적(racial) 분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인 사회의 경우 주류인 영국계 앵글로색슨을 비롯해 이태리, 아일랜드, 독일, 유대인 등 민족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황인종인 아시아 계 역시 인종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민족적으로도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프로 아메리칸의 경우에는 민족적, 인종적으로 비교적 단일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히스패닉 내에는 인종적으로 유럽혈통의 백인에서부터, 원주민인 인디안 혈통과 아프리카계 흑인들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잡종교배에서 나온 혼혈인종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3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국가로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인종적 다양성은 히스패닉 백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치에 따라 히스패닉의 타 인종보다 주류백인 사회에 문화적으로 더 쉽게 동화될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런 경향은 히스패닉 내에 타 인종에게도 유사한 문화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민 2, 3 세대에 이르면서 히스패닉 내의 인종적 갈등은 더 심화되어 문화적 성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히스패닉과 비히스패닉 사이의 문화적 차이보다는 백인 히스패닉과 유색 히스패닉 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깊어지고 있다(García J. E., 2000: 44-45).

“나를 같은 자루에 넣지마(No me pongas en la misma bolsa)”라는 표현은 중남미인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혼돈하는 외부인에게 자주 던지는 표현이다. 이런 식의 거부반응은 미국 내 히스패닉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종적으로 같은 백인의 경우라도 멕시코 출신과 아르헨티나 출신은 민족적 성장 배경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비히스패닉 인종으로부터 동등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가까운 미래에 히스패닉의 인구 증가와는 상반되게 이들 사이에 인종적인 갈등으로 히스패닉의 문화는 더욱 다양화되는 반면 정체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들에게 문화적 유대감을 부여하는 요소는 카톨릭 교회와 언어의 전통이다. 히스패닉 카

톨릭은 이들의 다양한 출신과 이질적 단체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캘럽에 의하면, 히스패닉 중 대학에 가는 숫자보다 교회에 가는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의 5분의 4가 카톨릭 신자다. 카톨릭 내의 다른 인종에 비해 젊은이들의 비율도 높다. 히스패닉의 종교적 성향에서 특이한 점은 규칙적(practicing) 신도와 불규칙적(nonpracticing) 신도 사이의 격차가 심하다. 그 배경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에게 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반면,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식민지시대부터 교회가 독재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중산층은 반카톨릭 성향이 지배적이다.¹⁾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면에서 카톨릭 교회는 종교적 역할 뿐 만 아니라 히스패닉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전통문화의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카톨릭 학교가 운영하는 히스패닉 귀족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카톨릭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죄의식은 히스패닉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대가족 중심의 가족 의식 역시 교회의 영향 때문이다.¹⁾

카톨릭 교회는 오래 동안 문학을 비롯한 지식인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히스패닉 역사에서 최초의 지식인 계층은 카톨릭 성직자들이었는데, 미-멕시코 전쟁 이후 성직자들이 중심이 된 신문이 캘리포니아에서 활성화되었고, 곧이어 텍사스까지 확장되었다. 신문은 스페인어로 쓰여진 역사 기록과 함께 스페인어 자체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848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은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유리한 조항들이 일방적으로 수용된 조약이었으나, 멕시코 정부에서도 몇 가지 단서를 붙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스페인어를 미국 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의미가 퇴색되기는

³¹⁾ 반카톨릭 성향은 1980년 대 이후 카톨릭에서 신교로의 개종하는 히스패닉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장로교보다는 baptist, Jehovah's Witnesses, fundamentalist Church of God, Mormon 등으로 개종하는 경향이 높다.

³²⁾ 히스패닉에게 가족 개념은 결혼과 혈통에 의한 관계(relatives) 뿐 아니라 교회의 대부

했지만, 이 조항은 초기 멕시코인이 지녔던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초창기 히스패닉의 대다수는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20세기 초에 이르면 이런 양상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특히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단순노동자들이 멕시코 이민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스페인어는 약자와 열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인식이 확장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의 주류사회 뿐 아니라 치카노들 사이에도 팽배해있었다. 치카노의 보수적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후손들이 스페인어를 잊고 따라서 고유한 전통이 말살되거나 앗을까 하는 불안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60년대 치카노 민권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 그 시발점이 된 것은 대학 내 스페인어를 외국어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부 전공과목은 스페인어로 강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커리큘럼 변경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페인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2 세대나 3 세대 히스패닉들은 점차 스페인어보다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나 영어만 사용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남서부 지역 히스패닉의 경우 이중언어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출신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보인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영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반대로 영어를 중심으로 스페인어를 섞어 쓰기도 한다. 강조나, 코믹한 표현 혹은 독특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영어 문장에 한 두 개의 스페인어 단어를 영어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교체시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이민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영어를 습득하고, 가정에서도 영어를 쓰려는 경향이 전 세대에 비해 강한 편이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멕시코 아메리칸 중 75%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90%가 공공장소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이 가운데 다만 60%가 가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Aguirre, Jr., 1988: 115-130).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페인어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L.A.에 본부를 두고 남

(godfather)나 아주 가까운 친구까지도 포함된다.

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스페인어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사(Televisa)”나 『라 오피니온(La Opini n)』 같은 일간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민 1세대의 경우에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가 보편적이지만, 후속 세대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히스패닉의 새로운 이민이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한 이중언어 사용은 계속될 것이다.

스페인어 지방신문들은 뉴스와 사설 뿐 아니라 시인, 수필가, 사회비평가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는데, 멕시코 혁명과 함께 부르주아 출신의 멕시코인이 이주하면서, 일간지 『알리안사 이스파노 아메리카나(Alianza Hispano Americana)』 처럼 보수적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 히스패닉 사회는 보다 세속화되고, 성직자들의 사회적 비중이 약화되면서 이들이 주도했던 지식사회의 기반은 흔들리게 된다. 히스패닉 엘리트 사회는 성직자의 자리를 이어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그 역할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방신문의 규모로 성장하기 시작한 히스패닉 언론은 남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당시의 신문들은 뉴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학작품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으므로 이른바 치카노 문학이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Duignan, 1998: 181).

1960년대 인권운동이었던 치카니스모는 이미 40년대부터 등장한 좌파 지식인들과 문인들에 의해 지적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문학을 통해 히스패닉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참여문학의 형태로 발전했던 치카니스모 문학은 고전으로 평가되는 조지 산체스(George I. Sanchez)의 『잊혀진 백성(The Forgotten People)』 (1940)에서 시작된다. 이 작품은 미국의 제국주의가 빚어낸 뉴멕시코 히스패닉의 비극적 운명을 고발하는 의식화 운동의 첫 걸음이었다. 에르네스토 갈라르사(Ernesto Galarza)는 『노동의 거래(Merchants of Labor)』 (1964)에서 브라세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여러 개의 이념적 분파로 갈라지기 시작한 치카노 사회의 단합을 주장한다.

참여문학의 성격을 띠는 일련의 치카노 문화부흥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성격의 최초의 대학 신문은 『외침: 멕시코 아메리칸 사상 저널(El Grito: Journal of Mexican-American Thought)』 이었는데, 이 잡지에는 전투적 성격의 소설이나 시나 게재되었다.

치카니스모 문학의 참여적 성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작가로는 루이스 미겔 발데스(Luis Miguel Valdes)와 코키(Corky)라는 별칭을 갖고있는 로돌포 곤살레스(Rudolfo Gonzalez)를 들 수 있다. 발데스는 그가 창설한 “테아트로 캄페시노”(Teatro Campesino)라는 극단을 통해 활동했는데, 시인이자 대학교수이며 샌프란시스코 마임극단의 단원이기도 했던 발데스는 오직 농장노동자들로 구성된 연극단체를 만들었다. 테아트로 캄페시노가 가장 선호했던 연극 패턴은 멕시코 전통 발라드인 코리도(corrido)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이었다. 그것은 뒤그난이 지적한 것처럼 “혁명직후 소련에서 대중화된 프로파간다 스타일과 1차 세계대전 직후 베를린에서 유행하던 좌익단체의 예술형식을 계승한 것”이었다(Duignan, 1998: 112). 그러나 발데스는 민속적 분위기의 서정시에 정치적 메시지를 결합하는 패턴을 보다 실천적으로 변형시켜, 이데올로기를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우회적으로 관객을 의식화하는 양식을 선택했다.

로돌포 곤살레스의 시집 『나는 호아킨(Yo soy Joaquín)』은 치카노 문학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준 모범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는 소설처럼 줄거리가 뚜렷하고 시형식도 시운율에서 거의 벗어나 시와 소설의 경계에 있는 작품인데, 벌목공과 프로복서를 거쳐 인권운동가와 교육자 그리고 마침내 작가가 된 그의 자전적인 행로가 담긴 이 시집은 히스패닉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자신의 일상적 주제를 바탕으로 테크노로지의 문명에 대한 비판, 미국 사회의 경쟁적 시스템이 가져오는 공허함, 인종 차별이 동반하는 개인적 소외 같은 거시적 주제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점에 있다.

치카니스모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참여적 문학운동은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지만, 인권운동이 쇠퇴하는 1980년대 이후에는 보다 개인적 주제로 변형된다. 특히 1990년대에는 미국문단의 경향을 따라 페미니즘 경향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V. 나오는 말

미국의 역사와 문명은 인종의 충돌과 화합으로 형성되었다. 남북 전쟁처럼 역사의 굴곡에는 언제나 인종문제가 개입되어왔다. 새로운 피를 공급받는 것처럼 미국에게 이민은 국가적 생존을 위해 필연적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과 중남미는 서로의 영향관계 속에서 인종적 충돌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왔고, 미국 내 히스패닉 인종의 존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안고 리오그란데와 플로리다 앞 바다를 건너 북쪽으로 이주하려는 히스패닉의 거대한 물결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멕시코인, 푸에르토리칸, 쿠반 아메리칸은 히스패닉 인종 내에서 민족적 주류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남서부와 뉴욕 시 그리고 플로리다에 각각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지리적-민족적 분포는 각 히스패닉 민족이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충돌로 빚어진 결과이다.

히스패닉 인종의 다수를 차지하는 멕시코 아메리칸은 히스패닉 사회의 사회-문화적 중심점을 이루고, 타 히스패닉 문명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주류문화에 눌러 잠재되어 있던 멕시코 아메리칸 중심의 히스패닉 문화는 1960년대 인권투쟁과 함께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창조된 “아스틀란” 제국의 신화적 해석은 차별 받는 히스패닉의 인종적 자부심을 지키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이런 정신은 스페인어의 전통을 지키려는 대학가의 히스패닉 학생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사파티즘이 농부들의 경제적 생존에서 멕시코 민중의 정신적 정체성으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치카니스모의 연장선에 있는 차베스의 농장노동자 인권운동은 임금 투쟁에서 전 히스패닉의 정신적 주체로 승화되었다.

한 세기 동안 축적된 히스패닉의 문화적 전통과 1980년대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히스패닉의 사회적 성장은 미국 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 MexAmerica로 인식된다. 1960년대 MexAmerica 는 히스패닉 집단 거주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개념이

었으나, 오늘날은 지역을 떠나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문화인류학적 개념으로 인식된다.

미-멕시코 국경지역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과 공조가 교차되었다. 마킬라 산업은 히스패닉 이민과 밀접한 역학관계에 놓여있는 바, 특히 이곳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 생태계 등은 히스패닉이 이민을 선택하는 데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히스패닉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정치적, 문화적 연대감을 구성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백인에서부터 원주민에 이르는 다양한 인종을 아우르고, 30여 개의 나라에 달하는 복잡한 민족성으로 구성된 히스패닉은 카톨릭 교회와 스페인어 사용에서 보다 유대감을 느낀다. 카톨릭 교회는 히스패닉의 스페인어 보존과, 문화적 권위, 지식사회의 발전, 대가족관계, 높은 출산율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히스패닉 사회를 대표해왔다.

리오그란테를 넘어 미국으로 가는 히스패닉의 거대한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여정을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부자나라를 찾아가는 경제적 욕구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물결의 힘은 콜럼버스가 이곳을 처음 온 이후부터 한번도 멈춘 적이 없는 인종의 대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Abstract

Este artículo, en que se trata de los latinos, o sea, la "Raza" de los Estados Unidos, consiste en tres partes capitales: 1) la historia breve, 2) la situación social y 3) la identidad cultural, de los latinos.

En la primera parte, nos explicamos el proceso histórico de la formación de tres grupos étnicos: chicanos, puertorriqueños, cubanos. Cada de estos tres grupos lleva sus propios caracteres geográficos y generacionales según los motivos de inmigración o la relación con los Estados Unidos. Los chicanos (o mexican-american) poseen la hegemonía en este mundo de los latinos tanto en su número de la población de inmigrantes como en su

historia profundamente relacionada con los Estados Unidos (la inmigración de los mexicanos hacia el norte, puede dar el sentido de la Reconquista para ellos).

En la segunda parte, en cuanto a la situación social de los latinos, nos enfocamos a tres puntos temáticos: la conciencia histórica y los movimientos masivos para los derechos de la Raza; las políticas de ambos países -los Estados Unidos y México- sobre la inmigración y el concepto nuevo de "MexAmerica"; la relación dinámica de los latinos en la región fronteriza (sobre todo, de las condiciones de labor y de ambiente).

En la tercera parte, para acercarnos a la identidad cultural de los latinos, tratamos de varios factores culturales: raza, religión, lenguaje y literatura. Los latinos se componen de varios tipos raciales como blanco, criollo, mestizo, indígena, negro, etc. y también vienen de más de veinte países latinoamericanos. Esta complejidad racial y étnica de los latinos puede ser el punto decisivo (en muchos casos, negativo) cuando hablamos de la identidad cultural. A lo largo de la historia de inmigración, la iglesia católica ha desempeñado el papel de mantener la tradición de la cultura de los latinos y formar alguna unidad espiritual entre ellos. Además la iglesia católica da afecto al crecimiento explosivo de la población de los latinos. Junto a la iglesia católica, el español mismo ha desempeñado casi el mismo papel en lo que se refiere a la identidad cultural. Pero en las siguientes generaciones nuevas de los latinos se usará menos que en las de sus padres.

Key Words: Hispanic, Latinamerican culture, American immigration, American race, American area study / 히스패닉, 중남미문화, 미국의 이민, 미국의 인종, 아메리카 지역연구

논문투고일자: 2003. 4. 30

게재확정일자: 2003. 5. 17

참고문헌

- 로버트 E. 퀴크(2002), 『피델 카스트로』, 서울: 홍익출판사.
- 유종선(2001), 『미국사 백 장면』, 서울: 가람기획.
- 이주영 외 공저(1991), 『미국현대사』, 서울: 비봉.
- Abalos T. David(1988), *La Comunidad Latina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 and Political Strategies for Transforming Culture*, Westport: Praeger.
- Aguirre Jr., Adalberto(1988), “Language Use and Media Orientation in Bilingual Mexican Origin Households in Southern California”, *Mexican Studies*, Vol. 4, Invierno, pp. 115-130.
- Cornelius A. Wayne(1999), “The Structural Embeddedness of Demand for Mexican Immigrant Labor: New Evidence from California”, Su rez-Oroszco, coords., *Crossing: Mexican Immigration i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of Harvard, pp. 120-142.
- Chavez, Linda(1991), *Out of the Barrio: Toward a New Politics of Hispanic Assimilation*, New York: Basic Book.
- De Varona, Frank(1996), *Latino Literacy*, New York: Henry Holt.
- Duignan J, Peter(1998), *The Spanish Speakers in the United States*, Lanham/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Fernandez de Castro, Rafael y Dominguez I. Jorge(2002), *Socios o Adversarios?: Mexico-Estados Unidos Hoy*, Mexico D.F.: Oceano.
- García J. E., Jorge(2000), *Hispanic/Latino Identity*, Malden: Blackwell.
- Gonzalez, Rodolfo(1972), *I am Joaquin/Yo soy Joaquin*, New York: Bantam Books.
- Griswold del Castillo, Richard, et al.(1991), *Chicano Art: Resistance and Affirmation, 1965-1985*, Los Angeles: Wight Art Gallery.
- Langley D. Lester(1988), *MexAmerica: Two countries, one future*, New York: Crown Publishers.
- Larsen, Ronald J.(1989), *The Puerto Ricans in America*, Minneapolis: Lerner Publications Company.
- Monsivís Carlos(1995),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 Mexico”, in Rodríguez O. y Vincent, (coords.) *Common Border and Uncommon Paths: Race,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in U.S.-Mexican Relations*, Calgary: University of Calgary, pp. 11-25.
- Myung-Hye Kim(2002), “Female Maquila Workers and Urban Neighbourhood Movement in a Border City of Mexico”,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5, No. 1, pp. 67-90.
- Noriega A., Chon and López M. Ana(1996), *The Ethnic Eye: Latino Media Art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Novas, Himilce(1994),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atino History*, New York: Plume.
- Orme, William(1993), *Continental shift, Free trade and the New North America*, Washington: the Washington Post Company.
- Portes, Alejandro and Gumbaut G. Rubín(199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Rendon, Joel(1979), *The Nation of North America*,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 Trueba T. Enrique(1999), *Latinos Unidos: From Cultural Diversity to the Politics of Solidarity*, Lanham.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